

세계 여성불자 연대 확인

제9차 사카디타대회 참관기

— 이화 불교여성개발원 사무국장

말레이시아 푸총시 수성림(修成林)에서 열린 제9차 세계여성불자대회(9th Sakyadhita)는 '세계 다문화공동체 내 여성불자들의 모임(Buddhist Women in a Global Multicultural Community)'이란 주제로 6월 17일 개최식에 이어 4박 5일간의 본행사과 2박 3일간의 사찰순례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25개국에서 외국인 184명(비구니:127, 비구:2, 재가불자:55), 말레이시아인 346명(비구니:34, 재가불자:312) 등 총 530명이 참가했다. 한국은 50명이 참가했다(비구니:26, 재가불자:24).

대회는 아침명상, 오전 발표, 그룹토론, 오후 발표, 워크숍, 저녁예불, 문화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뜻의 사카디타(Sakyadhita)는 1987년 인도의 보드가야에서 결성돼 격년제로 열린다.

■ 학술대회

사론 수재미교포, 미국 시애틀대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9개 부문으로 나뉘어 47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사론 수는 "서양문화권에서는 참선만을 불교전통으로 한정한다. 참선으로 축소·상품화된 불교로 전락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사회적 참여나 정의 수행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잠파 체드론(티베트 승려)의 논문 '비구니 출장과 여성 구족계: 비구니 법맥의 전수'이다. 논문을 통해 '달라이라마의 2005년 티베트 불교 비구니계 복원 기금 후원, 2006년 서양비구니위원회 비구니 법맥 복원 연구 요청, 티베트 정부의 비구니 연구 종결 요구 등 비구니 법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런 일들에 대한 결과는 2007년 7월 함부르크에서 열린 비구니출장 및 수계법맥 국제학술회에서 발표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정희 불교여성개발원 자문위원은 '불교, 무속, 한국역사 속에서의 여성' 주제 발표에서 "1600년 동안 생명철학으로서의 불교와 불교를 받아들인 무속은 공존이 가능했다"며 "특히 깊은 가부장적 억압에서 살아남으려는 여성들의 영혼의 소리이며 이야기"라고 한국 불교가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로 토속신앙을 수용해온 과정을 설명했다.

본과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제8차 한국대회가 각국의 다른 불교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는 신뢰의 장이었음을 전제하고, 불교여성개발원의 주요활동과 전국신도회조직

처음으로 여성불자가 만장일치로 추대된 사실, 전국비구니회의 국제 불교를 향한 활동 등을 소개했다.

이향순 교수(미국 조지아대)는 '영화 속의 불교 이해'에서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 불교적인 것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은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혜선 스님(한마음선원·선학 박사)은 '불법을 노래로: 음악을 통한 수행'이라는 논문을 통해 '선의 가

25개국 530명 참가... 명상·토론 등 진행 말레이시아 사찰의 대인봉사 모습에 감동



6월 17일 개최식.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한국 비구니스님들과 여성불자들.

몽골에서 만남을 약속한 채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 사찰순례

개회국인 말레이시아의 불교도는 전체종교인구중 17% 정도이다.

본 대회 기간 중 방문한 스리랑카 사찰인 부디스트 마하비하라에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스리 담마난다 스님이 주석한다. 얼마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나타난 스님은 인상 깊은 메시지를 전했다.

■ 참관후기

처음 말레이시아에 도착했을 때 40도를 웃도는 날씨와 강당에 매트 깔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아하기에 난감함을 느꼈다. 그러나 이런 불편함은 하루가 지나자 놀라게도 적응이 됐다. 이는 여성불자라는 연대감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이 아니었을까.

특히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국교인들이 운영하는 포교당 반야원 신도들이 김치와 밀 반찬을 챙겨주며 해준 격려와 자원 봉사자 김재별 학생의 봉사, 통역을 맡아준 박찬용·진우기·이향순 선생의 노고에 잊을 수 없는 고마움이 다. 사찰순례 중 박찬용 교수(미국 오하이오주립대)의 판소리를 시작으로 한 즉석 음악회를 통해 태극 매치(여성들)를 위해 1055달러가 모금되는 이벤트도 있었다.

스리 담마난다 스님의 말씀으로 글을 마친다.

"여성불자들이여, 일단 방문을 열고 눈을 감고 참선하라. 그리고 방문을 활짝 열고 나와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보아라!"

고 있었다. 대인봉사에 적극적인 말레이시아 사람은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교류에 중점을 두고 불교가 지역주민들의 삶에 어떠한 도움을 줄까를 고민한다. 마지막으로 사찰이 불교와 사찰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부처님 말씀과 사찰 소개 영문 소책자를 무료로 배포했다.

■ 참관후기

처음 말레이시아에 도착했을 때 40도를 웃도는 날씨와 강당에 매트 깔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아하기에 난감함을 느꼈다. 그러나 이런 불편함은 하루가 지나자 놀라게도 적응이 됐다. 이는 여성불자라는 연대감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이 아니었을까.

특히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국교인들이 운영하는 포교당 반야원 신도들이 김치와 밀 반찬을 챙겨주며 해준 격려와 자원 봉사자 김재별 학생의 봉사, 통역을 맡아준 박찬용·진우기·이향순 선생의 노고에 잊을 수 없는 고마움이 다. 사찰순례 중 박찬용 교수(미국 오하이오주립대)의 판소리를 시작으로 한 즉석 음악회를 통해 태극 매치(여성들)를 위해 1055달러가 모금되는 이벤트도 있었다.

스리 담마난다 스님의 말씀으로 글을 마친다.

"여성불자들이여, 일단 방문을 열고 눈을 감고 참선하라. 그리고 방문을 활짝 열고 나와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보아라!"

사진제공=불교여성개발원
더 많은 사진 보기 buddhanews.com



도선사-금강사 아름다운 인연



도선사 부조실 현성 스님이 6월 25일 호국 금강사에서 열린 천도제에서 영가법어를 하고 있다.

군법당에서 봉행되는 6·25 전몰장병 천도제를 23년간 후원한 사찰이 있어 화제다.

조계종 군종교구(주지 일민)가 주관하고 5군단 호국 금강사(주지법사 김갑영)가 주관하는 제23회 6·25 전몰장병 및 희생영령 합동 위령 천도대제가 서울 삼각산 도선사의 후원으로 6월 25일 금강사 대웅보

23년전 사찰건립 물심양면 돕고 6·25 전몰장병 천도제 매년 후원

전에서 봉행됐다.

도선사가 호국 금강사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84년 당시 군단장이었던 정동호 장군이 호국 금강사 설립을 발원했고 도선사가 사찰 건립을 위해 물심양면 도움을 주면서부터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도선사 부조실 현성 스님은 호국 금강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신도들과 함께 매년 6·25만 되면 항상 호국 금강사를 찾아 전몰장병 천도제에 동참하고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

이성출 군단장은 추모사에서 "선배 전우들의 호국 수호 정신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원동력"이라며 "호국 영령들의 값진 희생을 뜻 되새겨 다시는 이땅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천도제의 의미를 설명했다.

현성 스님은 "호국 금강사 설립에서부터 지금까지 매년 천도제를 후원하며 선조들의 호국 불교의 정신을 잇고 있다"며 "특히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고 희생당한 모든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일이므로 매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글·사진/포천=김두식 기자

9여단 호국 구광사 낙성

11사단 9여단 호국 구광사가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을 증명법사로 6월 24일 낙성 및 점안 법회를 갖고 호국 도량으로 거듭났다.

9여단에는 원래 호국사라는 조그마한 법당이 있었으나 이곳에서 군중병으로 근무했던 지상 스님과 장병 불자들이 서원을 세워 법당을 허물고 새로 신축을 하게 됐다. 법당 이름도 호국사에서 김병관 1군 사령관과 군법사들이 뜻을 모아 호국 구광사로 명명했다.



호국 구광사 표지석을 제막하는 모습.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진행되나

'2006 불교포교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추도록 불교 활성화에 이끔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행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 어떻게 동참하나

- ▶ **결연**: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 ▶ **군법회 위문**: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 ▶ **군법당 건립 후원**: 낮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 ▶ **정기적 물품 전달**: 군법당, 군법지에 후원물 전달.
- ▶ **법사 지원**: 법사님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 ▶ **등장 및 문의**: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 ▶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 ▶ **후원 계좌안내**: 006-25-0023-989(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에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별) 문의:02-2004-8291

만인 동참
ARS: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http://ad.buddhapia.com

불교 최초 실시간 온라인 광고 사이트 애드부다피아!!

인터넷 세상, 이제 불교계도 모든 광고와 정보를 인터넷으로 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해야 하는 사찰관련 홍보나 행사, 법회안내,
그리고 급하게 구하는 구인구직자리...
아직도 신문이 나오든 날짜만 기다리며 광고를 하십니까?

이제 애드부다피아를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광고의
본질적인 효과를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속도로 실시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지인 불교계의 신문에 광고를 하려면 최소 1주일에서 많게는 2주 이상이나 광고정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중요한 법회나, 행사 등과 관련한 광고의 경우에는 원하는만큼의 광고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애드 부다피아는 실시간으로 바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박하거나 홍보기간이 중요한 광고에서 최대효과를 약속합니다.

광고 신청도 쉽고 편리합니다!

일일이 전화로 팩스로 광고를 신청해야 하고 또 광고문안이 나오면 다시 확인,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애드부다피아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또 바로 온라인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다피아, 부다뉴스가 함께 합니다.

국내 최대의 불교포털사이트 부다피아, 국내 최대의 불교 인터넷 뉴스 부다뉴스와 함께 하는 부다피아는 이미 불교계에선 국내 최대의 방문수를 자랑합니다. 애드부다 피아는 이러한 부다피아, 부다뉴스와 상호연계하여 광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대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어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광고와 함께 풍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없었던 지면광고와는 다르게 애드 부다피아에서는 표현하고 싶은 광고의 모든 컨셉을 담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물론, 보다 역동적인 동영상 서비스로도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인제라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편리한 광고 시스템입니다.



[광고접수문의]

http://ad.buddhapia.com / admaster@buddhapia.com 전화 : (02)2004-8213~7, (02)732-1522(직) / 팩스 : (02)737-0696